

동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타 자치구 2배

공동주택비율 30% 못미쳐 자체 관리 안돼
불법투기 많고 미화원 인건비 비중도 높아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광주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 다른 자치구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동구 51억7600만원 ▲서구 73억3800만원 ▲남구 45억9700만원 ▲북구 100억원 ▲광산구 100억원 등으로 이를 자치구의 전체 인구로 나눴을 때 주민 1명당 소요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항비는 ▲동구 4만7000원 ▲서구 2만4000원 ▲남구 2만2000원 ▲북구 2만1000원 ▲광산구 2만7000원 등이다. 각 자치구는 매년 용역업체의 규모와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 1~4개의 업체를 선정해 위탁하고 있다. 대행사업비 책정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

시해, 실질적인 인건비를 반영해 책정하게 된다. 자치구에 따라 인건비가 70~80%를 차지하고, 매립장 반입료,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을 책정해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위탁을 맡은 업체들의 경우 동구는 전체 67명의 인력과 20대의 장비가 투입되고, 서구 123명에 35대, 남구 73명에 25대, 북구 145명에 51대, 광산구 150명에 50대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관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게 된다. 하지만, 동구의 경우 공동 주택의 비율이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다른 자치구의 두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각 자치구의 공동주택비율은 동구 25%, 서구 67%, 남구 55%, 북구 64%, 광산구 74% 등으로 동구의 경우 광산



광주 북구청 청소민원 이동처리반원들이 우산동 말바우 시장 주변에 쌓인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구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실 등에서 쓰레기 봉투를 직접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집·판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화원들의 손이 덜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불법 쓰레기

가 많고, 종량제 봉투를 통해 수거되는 쓰레기들도 재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동구는 미화원들의 근무 연령이 높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친환경 운전 도와드립니다”

환경부, 스마트폰 앱 '에코드라이빙' 개발

환경부는 3일 “운전자의 친환경운전을 도울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에코드라이빙’을 개발해 지난 1일부터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친환경운전 습관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에코드라이빙’과 차계부 관리를 돕는 ‘친환경차계부’ 등으로 구성됐다.

에코드라이빙은 경제속도 준수 및 급가속, 급제동 체크 등 운전 중 자신의 운전 습관을 체크할 수 있는 에코드라이빙 체형 기능을 제공한다.

또, 주행 시 실시간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운전습관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 운전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친환경차계부는 ▲주행거리 및 주유비 관리 ▲차량점검 기록 및 알림 ▲차량 소모품 교환시기 알림 ▲기간별 리포트 기능 등을 제공한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차계부를 기재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에코드라이빙 데이터를 연계해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환경부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연료비의 1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이와 함께 ‘3급’ 방지 기능을 활용해 하루 급출발 10회를 줄일 경우 1인당 연간 약 34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용과 아이폰용 OS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스토어에서 각각 내려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운전 포털사이트(www.eco-drive.or.kr) 가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계기로 친환경운전이 생활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친환경운전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파·폭설·집중호우... 어김없이 찾아와 일상화 된 이상기후

‘2011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피해비용 2100년까지 2800조원 예상

지구 온난화로 전세계 기후가 급격히 변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도 한파와 폭설·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준을 넘어 막대한 인명을 앗아가고 농작물을 고사시키거나 하천 사상 유례가 없는 전국적인 정전 사태를 불러오는 등 큰 피해를 줬다. 기상청 등 관계 부처는 3일 함께 펴낸 ‘2011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상기후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비용이 2100년까지 2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적 내내 잦아들 날씨는

난해 우리나라에는 1월부터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오면서 심상찮은 한해 날씨를 예고했다. 삼한사온 현상이 사라지고 1월 내내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다. 1월 평균기온은 -4.4도로 1973년 전국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로 낮았다. 최저기온이 -10도 이하인 날이 12.2일, 온종일 기온이 0도를 넘지 못한 날 역시 12.2일로 각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1월16일 부산의 최저기온은 -12.8도로 1915년 이후 9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봄철에도 잦아들 날씨는 이어졌다. 4월 중순부터 잦은 비와 함께 저온현상이 계속되더니 5월에는 반대로 이

상고온 현상이 나타나 29일 문산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같은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다. 이르게 찾아온 여름은 늦게까지 이어졌다. 9월 들어서도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더니 15일에는 급기야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는 폭염특보가 시행된 2008년 이후 가장 늦게 발표된 것이다. 대구의 낮 기온이 34.2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기온이 30도를 넘어면서 9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했다. 7월 9~10일 남해안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작으로 7월26~28일 중부와 경남 남해안 지방, 8월9일은 전

라북도 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7월2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 587.5mm의 비가 퍼부었고 27일 하루에만 301.5mm가 내려 역대 하루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11월에는 또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2일 제주도의 낮 기온이 26.4도를 기록했고 5일에는 서울에서 수온주가 25.9도까지 올라가는 등 때아닌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이른 여름과 함께 올해 가을이 사실상 실종된 셈이다. <산사태에 전국 정전 사태까지 = 지난해 찾아온 각종 이상기후 현상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무엇보다 날씨에 민감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가장 컸다. 과거 큰 비로 논밭이 침수되는 수준을 넘어 농작물이 얼어 죽거나 웃자라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1~2월 한파 때 비닐하우스와 인

삼재배시설 등에서 545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상한파와 폭설로 전국에서 2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불철 저온현상으로 재배면적 3만 1000ha에 달하는 과일이나 밭이 못 쓰게 됐다.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는 오리와 닭 등 가축 37만 마리와 전복 44만 마리가 폐사했다. 7월말 집중호우로 6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55명이 다쳤다. 서울과 춘천 등 곳곳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다. 초가을에 이어진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에 걸쳐 순환정전이 실시됐다. 유례없는 전국 단위 정전에 곳곳에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승강기에 사람들이 갇히는 등 각종 사고가 셀 수 없이 일어났다. /연합뉴스



“엄마 품이 최고”

3일 오전(한국시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극 테라노바베이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예정지에서 남극도둑갈매기 알맞이 새끼를 품고 돌 위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

무등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지는 업무의 편의성,
주차시설이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면적 330평/층 (분할임대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무등빌딩 임대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062) 222-0527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업명	(주)해주주택전시관 및 사육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면적	2,411.20㎡ (729.39평)	용적률	478.73% (법정 : 480%)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축면적	11,543.18㎡ (3,491.81평)
건폐율	59.53% (법정 : 60%)	최고높이	55.50m
규 모	지하0층 지상9층	건축연면적	11,543.18㎡ (3,491.81평)
건축면적	1,435.47㎡ (434.23평)	주 차 대 수	80대 (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주 차 대 수	80대 (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승용승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용 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전시시설 및 업무시설
용 도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전시시설 및 업무시설		

층별	면적	평	층고	용 도
1층	1,374.92	415.91	4.8m	근생, 업무시설, 기계실
2층	1,346.28	407.25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3층	1,355.08	409.91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층	1,359.78	411.33	7.5m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5층	1,360.28	411.48	3.75m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6층	665.60	198.32	3.75m	업무시설(사무소)
7층	1,375.18	415.99	4.8m	업무시설(사무소)
8층	1,385.18	419.02	4.8m	업무시설(사무소)
9층	1,330.88	402.59	4.5m	업무시설(사무소)
소계	11,543.18	3,491.81		

정부가격(감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워터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층고가 7.5m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가능 함

문의처 : 010-3625-6984